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1. 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네덜란드 법원, 테러 모의 이란 난민에 실형 선고
 - 10.27 네덜란드 법원은 이란 아와즈 지역 분리주의자들과 접촉해 이란 내에서 △은행 방화 △親정부 관계자 공격 △테러자금 제안 등의 테러 모의를 한 이란 출신 난민(男, 46세)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
 - * 법원은 이란에서의 고문·수감 이력을 고려, 검찰 구형(6년) 보다 낮은 형량 선고
- 英, SNS에 테러 행위 미화 극우주의 남성 유죄 판결
 - 10.28 英 법원은 SNS에 '11년 노르웨이에서 77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를 미화하고, 이슬람사원을 방화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체포('19.7)된 극우주의자 「샘 임리」(男, 24세)에게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
 - * 법원은 同人에 대한 9건의 혐의 중 8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고 설명

미주

- 美 하원, '파이브 아이즈*' 한국 등 확대 검토 권고
 - 10.31 美 하원 정보위는 정보 공유협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동맹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협력 대상을 기존 5개국 外 한국·일본·인도·독일·프랑스로의 확대를 권고하는 부속 보고서를 공개
 - * 영어권 5개국(미국·호주·영국·뉴질랜드·캐나다) 기밀정보 공유동맹
- 美 정보기관, 아프간 사태 빛나간 분석으로 정책 실패 초래
 - 10.28 WSJ은 美 중앙정보국(CIA) 등 4개 정보기관이 생산한 아프간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프간 정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탈레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분석이 美軍의 아프간 철수 당시 발생한 혼란과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
 - * 美 행정부·연방의회도 아프간 관련 정보기관의 업무상 문제 여부를 검토 中
 - *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었으나, 美 정부 관계자는 이란을 배후로 추정

○ 美, 관타나모 군사법정 배심원 “테러범 사면요청”

- 11.1 美 관타나모 수용소 군사법정에서 알카에다 조직원 「마지드 칸」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(8명 중 7명)이 美軍 지휘부에 서한을 보내 수용자들에게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「마지드 칸」의 사면을 요청
 - * 알카에다 조직원 「마지드 칸」(파키스탄 국적)은 체포된후 '06년 관타나모로 이송되어 재판에서 26년 형을 선고받았으며, 수용중 물고문·성폭행 등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

아 · 태평양

○ 탈레반 최고지도자, 대중 앞 첫 연설

- 10.31 AFP통신은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「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」가 5년간의 은둔을 깨고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소재 이슬람학교에서 탈레반 대원과 정부 당국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비공개 연설을 진행했다고 보도
 - * 同人이 사실상의 정부 통수권자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상징적인 최고 지도자로 종교부문만 책임질 뿐 정부체제는 사실상 이원화될 것이라는 전망 상존

○ 아프간 주변국,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원조 국제사회 촉구

- 10.29 제2차 아프간 주변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·러시아 등은 탈레반을 포함한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, UN 등 국제사회에 아프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인도적 원조 제공을 촉구

○ 인도 법원, 「모디」 총리 유세장 ‘연쇄폭탄’ 테러범 4명에 사형 선고

- 11.2 인도 국가수사국 특별법원은 '13.10월 비하르주 파트나市の 대형 집회장 ‘간디 마이단’에서 「모디」 총리(당시 후보) 유세 당시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의 주모자 4명에게 사형 선고
 - * 테러범들은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 SIM(Students Islamic Movement of India, 학생인도이슬람운동) 소속으로 총 11명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, 미성년자를 제외한 5명은 종신형 및 중형 선고

오스트리아, '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' 총기 난사

- '20.11.2, 20:00경,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무장 남성 1인의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, 용의자 포함 4명이 사망하고 23명 부상
 - * 코로나19 도심 봉쇄 4시간 전에 사건이 발생, 외출 시민들이 많아 피해 증가
- 폭발물 추정 조끼 착용 및 소총·권총·대검으로 무장한 용의자는 식당, 주점 등 6곳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, 결국 대치 중이던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 사망
-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하는 한편,
 - 용의자 「쿠즈팀 페즈줄라이」(20세, 오스트리아·北마케도니아 이중국적)는 스스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한 ISIS 가담 시도 전과자이며
 - * '19년에 최초 징역 2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에 소년법 적용으로 석방
 - 유사 테러 예방을 위해, 무슬림인 용의자가 빈번 방문해 오던 자국 내 과격 성향의 이슬람 사원 2개소를 폐쇄했다고 공개
- 이런 가운데, ISIS는 자체 선전매체 '아마크 통신'을 통해 '칼리프의 戰士'가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
- 한편, 오스트리아 정부는 독일 등 우방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이번 사건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사전 입수했음에도 예방에 실패했음을 시인하며,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계활동을 강화중이라고 발표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('04. 4월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월), 미국('04.12월), 캐나다('12.8월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월, 美 국방부) 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시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월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 ② '17.12월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 ③ '19.4월 스리랑카에서 ISIS 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